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 학습권 보장 -

고양시청소년의회 김재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 상임위원 김재윤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19가 유행함으로써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가격리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다수가 모여 공부하는 환경에서 혼자 공부하는 “혼공 시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가격리를 지속하면서 전국적 단위로 학교에는 온라인 클래스가 실행되고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해서는 이는 학교 선생님들의 진도 빨리 나가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저 50분 정도의 강의 영상과 관련 학습지 하나만 내주고 수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날이 아닌 이상 학습 내용에 관한 심화 내용이나 추가적인 정보를 알기 어렵게 되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사회적, 경제적 격차에 의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과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편차가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학습권을 보호하고 사교육에 의한 교육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학업적 질문을 통째로 답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공부에 열중하게 될 수 있게 하는 “고양시립 사이버 학문 문답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와 비슷한 시스템의 현황으로 네이버 지식인, 쿠팡다, 커넥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지식인은 질문 사항이 매우 포괄적이므로 원하는 질문이 쉽게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질문 애플리케이션들은 일정한 비용이 들어서 경제적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양시립 사이버 학문 문답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낮은 학년의 질문 사항을 상급 학년이 답해주는 멘토&멘티 시스템을 통해 질문의 답변자 선발에 필요한 예산을 절약하고,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열심

히 했을 때 “답변 왕”과 같은 칭호를 얻는 것으로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상의 특징인 익명성을 악용하는 사례에는 리포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욕설이나 학문적 질문에 관련되지 않은 질문을 하는 이용자의 계정을 제재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건강한 사이버 이용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또한 회원 가입 시에 개인 정보 일부를 등록하여 사이버 폭력이나 욕설 등 잘못된 이용으로 피해자가 고소, 고발을 진행했을 때에 수사에 난항이 없도록 진행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된다면 사교육의 의존도를 완화하여 경제적 격차에 의한 교육 수준의 편차를 줄일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교육 수준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집된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므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방법뿐만 아니라 고양시 의회와 고양시청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한 더 편안하고 실용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